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불어지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불어지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불어지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불어지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빛깔이 점점 붉게 되어 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한글
불어지다	ㅁ	ㅁ	ㅁ
불어지다	ㅁ	ㅁ	ㅁ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빛깔이 점점 붉게 되어 가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붉어지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빛깔이 점점 붉게 되어 가다.

붉어지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붉어지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붉어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붉어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붉어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불거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붉어지다
19세기
- 붉어지다

↳ 붙어지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붙어지다’의 옛말인 ‘붙어지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붙어지다’는 ‘붙다’의 옛말인 ‘붙-’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붙어’와 ‘지-’가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 19세기에 ‘붙어지-’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 20세기에 나타나는 ‘불거지-’는 ‘붙어지-’를 연철 표기한 것이다.

📖 문헌 속의 붙어지다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붙어지-, 불거지-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붙어지-, 불거지-

출처 1869 규합총서 전:26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빅반몰 너흐면 누르고 붉어지니.

현대어 풀이

백반 가루 넣으면 누르고 붉어지니.

출처 1880 한불사전 345

용례 02

66 문헌 용례

붉어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8 독립신문 1월 8일 1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대한 사룸이 얼굴이 불거지며 말하기를.

현대어 풀이

대한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20세기 불거지-, 붉어지-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불거지-, 붉어지-

출처 1902 신학월보 2:149

용례 04

66 문헌 용례

얼굴이 불거지며 몸에 땀이 나며 무음이 답답하야.

현대어 풀이

얼굴이 붉어지며 몸에 땀이 나며 마음이 답답하여.

출처 1908 빈상설 93

용례 05

66 문헌 용례

낙산 중허리가 홍공단 포장을 둘은 듯하게 황홀이 붉어지며 성 위에 자든 갖치는 한아들식 날아가며.

현대어 풀이

낙산 중허리가 홍공단 포장을 두른 듯하게 황홀히 붉어지며 성 위에 자던 까치는 하나둘씩 날아가며.

출처 1908 현미경 235

용례 06

66 문헌 용례

말은 한 마디쯤 하면 기침은 두 번 세 번을 하며 얼굴빛이 붉어졌다 풀어졌다 하느니라.

현대어 풀이

말은 한 마디쯤 하면 기침은 두 번 세 번을 하며 얼굴빛이 붉어졌다 풀어졌다 하는데.

출처 1937 조선일보 10월 28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도라홈에 걸리면 맨처음 웃눈꺼풀의 결막에 황회백색의 좁쌀 가튼 것이 돛고눈알이 붉어지며 작고 눈물이 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붉어지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붉어지다의 뜻과 역사](#)